

## 發 刊 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법학」 제40권 4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40권에서는 1호와 2호를 梁承圭 교수와 權寧星 교수 두 분의 정년기념호로 발간하는 등 어느 해보다 풍성한 연구 성과들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간 발간의 원칙을 계속 지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행스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1, 2, 3호에 많은 역량이 결집되어 이번호의 발간이 좀 늦어지고 수록된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법학」 제40권 4호에는 총 3편의 연구논문과 1편의 서평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41권부터는 「법학」지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전국적인 학술지의 면모를 갖추려 합니다. 이는 「법학」지가 활력 넘치는 연구의 장으로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학」지가 진정으로 우리 법학계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더욱 알찬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2월 10일

法學研究所長 崔 大 權